

# 팬데믹보다 무서운 폭염·한파… 와인이 사라진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⑫

## 기후변화와 와인

“와인업계가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부딪혔다.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백신은 없다.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와인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한 두해가 아니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이른 봄엔 주요 와인 산지의 기온이 최고 26도까지 오르면서 포도나무 개화를 앞당기더니 이내 이례적인 한파에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다 열려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여름엔 폭우까지 겹쳤다. 서리와 우박, 곰팡이까지 날씨로 인해 가능한 문제란 문제는 모두 겪어야했고, 올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을 역대 최대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파우로카 국제와인기구(OIV) 사무총장은 이달 웹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은 사상 최저였던



파우로카 국제와인기구(OIV)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웹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와인 생산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년과 비슷하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가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OIV는 올해 세계 와인 생산량을 247.1~253.5 밀리언 헥토리터(mhl·1mhl=1억 리터)로 추산했다. 2020년 세계 와인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28개국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와인 생산량은 250.3mhl이다. 2020년 대비 4% 감소한

것이며, 20년 평균보다 7% 낮은 수준이다. 3년 연속 평균 이하인 것은 물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의 248mhl에 근접했다.

OIV는 유럽연합(EU)의 생산량이 지난 해보다 13% 감소한 145mhl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탈리아의 올해 생산량 예상치는 44.5mhl로 전년 대비 9% 감소한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와인 생산량에서 스페인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생산량 예상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34.2mhl로 스페인 예상치 35mhl를 밀돈다.

유럽에서 작년보다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과 포르투갈, 헝가리 정도다.

유럽쪽 생산량 부진을 메운 것은 기후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미국과 호주, 칠레 등이다.

호주와 칠레의 올해 와인 생산량 예상치는 각각 14.2mhl, 13.4mhl로 전년 대비 30%씩 늘었다. 미국 역시 작년 대비 6% 증가한 24.1mhl로 예상됐다.

와인 생산은 줄었는데 소비는 늘었다.

로카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팬데믹으로 와인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문을 닫은 호텔과 레스토랑 대신 온라인 판매와 가정에서의 소비가 늘었다”며 “와인 소비는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팬데믹에 따른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와인 물류 비용 역시 급등했다. 우리나라 와인 수입 현황만 봐도 물량에 비해 금액이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미 물류비용이 와인 가격에 반영됐단 얘기다.

와인, 아래자래 더 비싸질 일만 남았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석기시대 본능에 휘둘리는 현대의 일상



#### 본능의 과학

레베카 하이스 지음/장혜인 옮김/월북

날리 없는데도 인간의 뇌는 위협이라고 인식한 사건에서 우리를 보호하려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꽤 막힌 도로에 갇혀 있거나, 즉시 당장해야 하는 이메일 알림이 울리면 뇌는 생존 본능을 발동시켜 우리가 굽주린 호랑이 100마리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게 만든다. 생존 모드에 갇힌 뇌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나 뺨집에서 흘러나오는 갓 구운 빵 냄새가 주는 기본 좋은 순간을 만끽하지 못하게 한다. 주변의 위험을 살피려면 즐거움이라는 사치를 부릴 여유 따위는 없다.

저자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위험을 새롭게 평가하면 생존 본능이 당신의 시간을 빼앗거나 주변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선조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했던 본능을 현대 환경에 맞게 이용할 제어 전략을 제시하는 책. 248쪽. 1만58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오버타임

카일 루이스, 월스트리트 저음/성원 옮김/시프

시간은 금이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 투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을 일정 시간을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계를 이어간다. 책은 일에 매인 노예 상태가 아닌 자유를 누릴 시간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시간은 오랜 화두였음에도 우리는 장시간



빛 미래.

160쪽. 1만4000원.

#### 물이 몰려온다

제프 구델 지음/박종서 옮김/북트리거

해수면 상승의 경고 수위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2013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 보고서는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이 최대 96.5c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녹아내리는 남극 빙상의 영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현재는 그 2배에 달하는 1.8m, 더 나아가 최대 2.7m의 해수면 상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책은 물의 세계가 되어 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하며 해수면 상승이 가져올 기후 재앙을 예고한다.

480쪽. 2만1000원.

#### 오인된 정체성

아사드 하이더 지음/권순숙 옮김/두번째테제

책은 극우의 부상과 그것이 야기한 공격에 대한 사회운동의 실망스러운 대응과 분열에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미국 흑인운동의 역사와 정체성 정치의 부상을 논하며, 운동의 분열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저자는 정체성 정치가 보편적 해방을 표방한 사회운동에 분리주의적 시각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차이만을 중시하고 연대와 공통을 찾는 노력을 면밀히 만들었다고 진단한다. 책은 백인종의 발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정체성 운동, 문학 논쟁을 분석한다.



200쪽. 1만4000원.



▲ 미국 10월 물가 6.2%로 급등…바이든·연준 긴장  
▲ 형다, 유예기한 달려채 이자 지금… 디풀트 간신히 면해



▲ 美 평균 집값 전년比 16% 상승… 증가폭은 문화  
▲ 베이징 코로나19 확산·폭설… 동계 올림픽 계획 차질 우려

버스티비 **KJB**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日하야시 외무상, 중국과 우호 의원 모임 회장직 사임  
▲ 독일 경제자문단, 올 성장을 2.7%로 하향